

화순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속도'

전문가 간담회... '백신바이오 허브' 도약 모색 바이오 인력 양성·화순생명사회포럼 등 제안

화순군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단복합단지) 유치를 속도 내고 있다. 화순군은 16일 "최근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병원 등 지역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첨단단지 유치 방향과 전략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첨단단지 유치를 위한 산·학·연·병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화순군의 역할과 실행전략, 지역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구복규 군수, 류기준·임지락

도의원, 정용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범희승 화순군립오양병원장, 조민 미생물실 증지원센터장, 류재상 KTR 헬스케어첨단화학연구소장, 이용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주상돈 한국광해광업공단 호남지사장 등이 참여했다. 군은 '화순 첨단단지 유치를 위한 실행전략' 발제를 통해 ▲바이오 인력 양성 ▲화순생명사회포럼 구성·운영 방안을 내놴다. 바이오 인력 양성 방향을 국내외 해외

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화순군 지역 의료·바이오 융합대학을 유치해 전남·광주 지역의 우수한 고교생을 바이오 분야로 유인하고 해외에 의료바이오 훈련센터를 설립해 해외 우수 인력을 국내 바이오 분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화학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지난해 실시한 '산업인력 현황 자체 조사' 결과, 바이오 분야 인력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직무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는 바이오 분야 기업과 기관 지원자 중 실제 채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화순군은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첨단단지

의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바이오 인력 양성 방안은 첨단단지 유치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국내·외 전문가 그룹, 정관계, 산·학·연·병 기관 등을 망라한 화순생명사회포럼을 구성해 첨단단지 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2010년 특구 지정 이후 연구 개발과 전임상·임상시험, 제품화, 인증, 생산 제조 등 백신·생물의약품 개발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며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화순 첨단단지 조성은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공약 중 전남도 지역 공약과 전남



화순군은 최근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병원 등 지역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유치 방향과 전략 등을 모색했다. (화순군 제공)

·광주상생발전위원회의 '전남·광주 공동 추진 11개 신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화순군과 전남도는 면역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제3세대 첨단바이오신약 특화'된 첨단단지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를 선도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군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화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바이오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특화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와 화순의 면역 치료제 결합한 '초광역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조성해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신·구도심 현장을 돌아보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소통 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 자전거 출근 '눈길'

신·구도심 순회 시민 목소리 청취 앞장 공무원 현장 점검 강조 소통 행보 실전

노관규 순천시장이 걸어서 출근하기에 이어 자전거를 타고 신·구도심을 번갈아가면서 현장을 돌아보는 등 시민과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시장은 지난 10일 자전거로 가곡동 자택을 출발해 순천시 서면 순천산업단지 조례동 호수공원을 거쳐 연향동 국민은행과 조곡동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출근했다. 11일에는 순천대학교와 향동 공마당, 옥천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동천 저류지 분화구정원 공사장과 아랫장을 둘러봤다. 노 시장은 "시내버스도 타고 걷기도 하지만 날씨가 덥고 많은 장소를 둘러보

며 시민들을 뵈기에는 자전거만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늘어선 나뭇가지로 인해 우산이 걸리던 가로수가 정비됐고 보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됐던 키보드가 정리됐다. 인도를 막고 있던 냉장고도 치워졌다. 노 시장은 출근길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사가 한창인 분화구정원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원도심 중앙동의 공동화 현상이나 용당교 주변의 횡단 보도 이용 개선 등 곧바로 해결되기 어

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노 시장의 자전거 출근은 현장 소통에 만물과 있지 않다. 공무원들에게 현장 소통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미도 있다. 노관규 시장은 "출근 후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삶은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시민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다"며 우천 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출근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노 시장은 "신청사 공사에 따라 주차장은 시민들에게 내줄 생각으로, 공무원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내가 먼저 자전거 이용을 실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남정민기자

곡성군, 통합순번 대기 시스템 도입 대기 시간 단축 이용객 편의 증진

곡성군은 16일 "민원 처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민원실은 청사 중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총 7개 팀이 10개 민원 창구를 통해 각각 산지·농지 전용, 개발 행위, 폐기물 인허가, 건축 인허가, 교통, 일반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일 평균 15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창구 별로 처리하는 업무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혀 순번 없이 대기하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을 통해 일반 민원(제증명, 민원접수), 토지 건물(제증명), 지방세, 차량 등록, 복합 민원(인허가 관련) 등 민원 사무 별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했다. 민원인은 터치형 키오스크로 본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 업무 분야의 순번 대기표를 뽑고 모니터를 통해 창구 번호 순번과 대기인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 순번 대기 모니터에는 군정 사업 안내와 주요 관광지 홍보 영상물을 함께 표출해 대기 시간의 무료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청원경찰이 작동법을 안내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작은 불편 사항들까지 꼼꼼히 살펴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곡성=이호상기자

'담양장터' 추석 선물 20% 특별할인

담양군은 16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행사는 오프라인 직매장(담양군담양읍 면양정로 730)과 온라인 쇼핑몰(www.damyangmk.kr)에서 동시 진행하며 전 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 기간 내 온라인과 모바일 앱 구매 고객 중 10명을 선정해 2022년

수확된 담양 햅쌀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로 진행한다. '담양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600여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소밭은 담양쌀과 전통한과, 주류, 장류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치즈돈가스, 쌀파스타, 요거트, 오란리, 건강보조식품 등 담양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담양=정승균기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보성서 임사회

시·군 지역발전·상생협력 방안 논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최근 보성군 북재출에서 2022년 제1차 임사회를 개최했다. 임사회에는 남해안남중권에 속속된 보성군, 여수시, 진주시, 순천시, 사천시, 광양시, 남해군, 고흥군, 하동군 등 9개 지자체 시장·군수,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보성군은 제7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돼 김철우 군수가 회장직을 맡았으며 이날 1일부터 보성군 다량체육관에 사무국을 이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날 임사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중

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무 검토를 통해 성공역과 대상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경전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순천시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남해군에서 열리는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와 시·군 지역발전, 상생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김철우 보성군수는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시·군 간 상호 경제 협력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남해안남중권의 상생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임병연기자

| | | | | | | | | |
|---|--|---|----|--|----|---|----|---|
|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 <h2>당진(신축)원룸매매</h2>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 14억5천 (용 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립니다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베이터, 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td> </tr> </table> | 광주 |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 전남 |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 시외 |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
| 광주 |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 | | | | | | |
| 전남 |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 | | | | | | |
| 시외 |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 | | | | | | |

010-6670-9800 (062-382-5500)